

샌들, 부츠, 하이힐, 스니커즈에 담긴 시대정신과 욕망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신발, 스타일의 문화사

엘리자베스 세밀렉 지음, 황희경 옮김

샌들은 고대에 착용되다 로마 제국 말기에 외면을 받은 신발이다. 그러나 수세기 후 18세기 말에 이르러 서구 패션에 등장했다. 19세기 중반 검소한 삶을 지향했던 영국의 심플 라이프족이 신었던 인도풍 샌들, 20세기 중반 히피가 신었던 지저스 샌들은 독특하거나 이국적 취향을 지닌 사람들과 연관이 있었다.

이후 샌들은 고급 패션에 받아들여지기도 했는데 정치 색과는 무관했다. 나이가 레저와 놀이, 나이가 우아함과 세련됨을 상징하기도 했다. 한편으로 개인 특유의 개성을 드러내거나 정치 성향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옷이 사람을 말해주는 것처럼 신발 또한 그러하다. 다시 말해 신발 또한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준다. “성별과 성격은 물론 추구하는 가치까지” 많은 것을 함의하



그녀는 패션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역사학자로, 패션 큐레이터 세계의 판도를 바꾼 인물 중 한명으로 선정됐다.

사실 신발의 원래 목적은 이동의 편의에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발은 실용성 외에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 신체적 편리보다는 “사회적 필요에 따라 디자인”되거나 사용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저자는 “부적절한” 신발을 선택했을 때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고정된 사회적 인식이 신발에 매우 깊이 뿌리박혀 있다”고 언급한다. 신발이 성별을 알리며 나이가 지위를 선언하거나 저항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책은 네 가지 주요 신발의 전형인 샌들, 부츠, 하이힐, 스니커즈에 초점을 맞춰 경쟁을 조명한다.

샌들 하면 뺨놓을 수 없는 인물로 레이먼드 덩컨이 있

기 때문이다.

샌들과 부츠, 하이힐, 스니커즈에 담긴 시대정신과 욕망을 읽어낸 책이 출간됐다. ‘신발, 스타일의 문화사’는 신발에 관한 놀랍고도 매혹적인 책이다. 저자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바타 신발 박물관의 수석 큐레이터 엘리자베스 세밀렉.

다. 현대무용가 이사도로 덩컨의 오판로,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추구했다. 1910년 순회공연을 위해 미국에 왔을 때 언론은 “인간 사회의 기록에 남겨진 그 어떤 복장 과도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고 평했다.

1930년대 경제 불황은 여성복에서 샌들의 호황을 가져왔다. 1931년 잡지에 실린 샌들 광고에는 “대중의 지갑 사정과 판매자의 수익 니즈에 맞는 상품입니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그러나 샌들은 남성에게는 쉽게 매치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달리 발등을 노출하는 이브닝 샌들을 신는 여성의 복장은 전통적 관습과 연계돼 있음을 보여준다.

부츠는 ‘다리 전체를 단단하게 감싸 안은 자부심’을 상징한다. 고대부터 착용했지만 16세기에 남성 패션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이후 남성의 패션에서 여성 복식의 중요한 아이템으로 전이된다. 여성용 부



<아날로그:2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거꾸로 읽는 세계사

유시민 지음

문필가 유시민에게 ‘거꾸로 읽는 세계사’는 처음으로 작가라는 이름을 달아준 책이다. 단시간에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이자 가장 오랫동안 독자들에게 사랑 받은 책이기도 하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베스트셀러 ‘거꾸로 읽는 세계사’가 1988년 초판 출간 이후 재개정돼 독자들 곁으로 돌아왔다. 30년 넘게 축적된 정보를 보완하고 사건에 대한 해석을 바꿨다. 그러나 제목을 그대로 쓴 것은 초판에서 견지했던 대로 ‘거꾸로 읽는 자세’를 전부 거꾸로 내지는 않았다.

전면개정판과 초판의 다른 점은 ‘20세기’라는 표현에서 찾을 수 있다. 초판을 집필하던 1980년대 후반이 20세기였다면 지금은 그 세기를 넘은 시점이다. 20세기를 돌아보고 21세기를 내다보며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들을 추릴 시간적 거리가 생겼다.

저자는 “내 인생의 절반은 냉전 시대였다. 전적 장군들이 양복을 입고 우리나라를 지배했다. 말할 자유가 없었다. 말을 해도 통하지 않았다”며 “이 책을 다시 쓰면서 내가 ‘20세기 인간’임을 새삼 확인했다. 20세기의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가슴이 울렁거리는 느낌이 들었으니 ‘20세기 인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책은 드레퓔스 사건, 사라예보 사건, 러시아혁명을 비롯해 팔레스타인, 핵폭탄·핵무기 문제 등 역동적인 세계사를 관통한다. 20세기를 만든 11가지 결정적 장면에는 저마다 시공간적 무대가 있지만 모두 연결돼 있다는 깨달음을 준다.

무엇보다 책은 재미있고 쉽게 읽힌다. 박학다식한 지식소매상 특유의 유려한 문체와 술술 읽히는 스토리텔링이 주는 글맛 때문이다.

<돌베개>1만7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고등어가 있는 풍경

한경용 지음

한경용 시인의 세 번째 시집 ‘고등어가 있는 풍경’이 서정시 학 시인선 기획으로 발간됐다.

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의 “지난날에 대한 오래고도 진중하고 고백과 스스로의 삶과 시를 향한 비전이 녹아 있는 경험적인 미학적 기록”이라는 표현처럼, 이번 창작집은 고백, 경험, 미학이 어우러진 시편들의 모음집이다.

“죽은 시인의 무곡”, “지리산의 피리소리”, “섬에”, “런닝구 시대”, 등 모두 60여 편의 시는 시인 특유의 활달하면서도 서정적인 언어와 역동적인 사유를 담고 있다. 특히 그의 작품 가운데는 ‘바다’로부터 연유하는 이미지가 많다. 제주도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성장한 이력이 보여주는 창작의 무늬다. 모든 예술가는 나고 자란 공간의 DNA 영향을 받는다는 전제에 따른다면 시인의 ‘창작의 바다’에는 물리적인 바다가 언제나 펼쳐져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어부들은 그물 속에/ 찰랑거리는 투명을 길어 올린다/ 포구의 바다에는 눈알들이 부러져 있다/ 물로 그린 형상이 시간 속에 무엇을 남겨놓았나/ 심해에 무덤을 남겨놓을 수 없는 운명/ 종족의 기억으로 핏자국을 씻을 때/ 아득한 개펄 너머 물결물결 울음이 번진다...”

위 표제시 ‘고등어가 있는 풍경’은 원초적이면서도 신화적인 그러면서도 현실적인 포구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고요와 침잠 너머 역동과 삶의 무게가 투영된 포구는 서정과 서사, 환상을 그려내고 있다.

공광규 시인은 “한경용만의 제제와 방법, 영성의 총합이 이번 시집에서 서정적 광휘로 빛난다”고 평한다.

<서정시학>1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요즘 언니들의 갱년기

김도희·유혜미·임지인 지음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폐경 연령은 49.9세다. ‘갱년기’는 이러한 폐경 전후의 시기를 지칭하는 단어로 한자로는 ‘다시 갱(更)’, ‘해 년(年)’, ‘기약할 기(期)’이다. 몸과 마음이 ‘다시, 새롭게’ 변화하는 시기라는 뜻이 숨어있다. 하지만 그간 갱년기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새로운 시작’의 의미보다는 ‘중년여성의 쇠락’, ‘느닷없는 짜증과 분노’ 등 부정적인 인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제 막 갱년기에 진입한 김도희·유혜미·임지인이 당사자들의 시선으로 갱년기를 새롭게 공부하고 정의하는 과정을 담은 ‘요즘 언니들의 갱년기’를 펴냈다.

저자들은 우리사회에 개인주의의 가치를 처음으로 제시한 X세대 70년대생이자 광고회사 출신의 기획 마케터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들은 수다형식으로 변화무쌍한 갱년기에 대처하는 개인의 내밀한 서사를 기록하고 요즘 시대의 갱년기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분석한 통찰을 이 책에 수록했다.

이들은 열반의 수다를 통해 갱년기 증상, 다양한 자가진단법, 여성호르몬, 남성 갱년기 등 넘쳐나는 정보에 대한 검증부터 부정적이고 제한적인 우리사회의 갱년기 해석에 대한 문제제기, 갱년기가 가지는 세대적, 사회적 의미 읽기 등 새로운 답문을 만들어간다. 이들은 갱년기를 ‘몸과 마음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때’, ‘잘 나이 들기 위한 중간 점검 시간’, ‘자신을 보듬는 재생의 시간’이라고 정의하며 갱년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만들어 가는냐에 따라 삶의 선편 같은 시간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전한다.

<일일호일>1만5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